

## 말썽꾸러기 직원에 속얕는 벤처CEO들

업무 기술보다 태도 중시, “기본소양 갖춘 직원만 쓴다”

내 수경기 침체와 자금경색 등으로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 CEO들이 믿었던 직원들에게 발등을 찍히는 사태가 최근 들어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전화 개발업체 M기업 대표는 직원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고스란히 당한 케이스. 이 회사의 J연구원은 지난 1년 동안 개발업무를 맡아오다가 점심시간만 되면 외부로 나가 오후 2~3시경 돌아오곤 했다. 회사에는 ‘병원에 다녀왔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식사를 했다’는 등의 핑계를 댔다. 이러한 일상이 반복되던 중 하루는 이 회사 대표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G기업에 비즈니스차 점심시간에 들렀는데 그 곳에서 자신의 직원인 J연구원과 마주쳤다. J연구원은 다른 직장을 구하러 점심시간을 이용해 면접을 보러 다닌 것이다.

정보통신업체 P기업 N대표 역시 최근 한 직원에 의해 웃지 못할 상황을 맞아야 했다. N대표는 올 상반기 직원에 대한 배려로 10여 명의 직원 중 한 명을 전사회 참석 겸 해외로 출장을 보냈다. 하지만 출장 도중 회사 법인카드 사용을 남발하고 출장일정도 맘대로 늦추는 등 물의를 일으켜 결국 이 회사 대표는 직원을 퇴사조치 시켰다.

대덕대학 인근에 소재한 B기업 대표도 최근 한 직원의 돌출행동에 머리를 쥐어짖 적이 있다고 털어놓는다. 나름대로 회사가 요구하는 연구개발

실력을 보여 연봉 협상후 입사시켰지만, 몇 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반응을 수차례 보여 눈물을 머금고 채용 몇 개월 만에 인연을 끊어야 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을 뽑을 때 기술보다 태도를 우선시 하기로 했다.”

업무태도가 바르지 못한 직원들의 돌출사고를 체험한 지역 한 벤처기업 대표의 인재 선발 방침이다. 태도가 바르면 기술을 문제없이 습득할 수 있지만 책임감이 없거나 집중하지 않는 직원은 결코 기술을 배우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들이 속속 터져나오며 따라 대부분의 대덕밸리 벤처기업 대표들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된 인재를 선호하고 있다.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기업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인재만 키우겠다는 뜻이다.

대덕밸리 C기업 대표는 “직원이 몇 안되는 기업에서 한 명이 퇴사하면 회사는 휘청거리기 마련이지만 냉혹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열정을 갖고 태도가 바른 인재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시 임채환 대덕밸리정책자문관은 “힘든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신입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좀 더 인재양성시스템에 투자해야 한다”며, “멘토링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실천하는 기업문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제품 신기술

## 파나진, 인공 DNA 유사체 ‘PNA’ 개발 출시



사람이 만든 DNA를 이용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에 의해 열렸다. 대덕밸리 바이오 벤처기업 파나진(대표 김성기)은 2년여의 개발기간을 거쳐 인공 DNA 유사체인 ‘PNA’(Peptide Nucleic Acid)를 개발, 본격적인 생산체제에 들어갔다고 7월 27일 밝혔다. 이번 개발로 파나진은 미국 어플라이드 바이오시스템사에 이어 PNA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두번째 회사가 됐다.

PNA는 기존 DNA의 불안전성을 인위적으로 보완한 신물질. DNA는 유전자 진단 등에 사용할 경우 생물체에 존재하는 효소에 분해되기 쉬워 질병 진단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PNA는 DNA 유사체로 DNA와 같은 이중나선형 구조를 갖고 있지만 분해효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PNA는 암, 백혈병, 류머티즘, 당뇨, 알츠하이머, 간염 등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질병들을 유전자 수준에서 증가를 억제하고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회사의 PNA기술은 세계적인 생명공학연구소인 파스티르연구소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다.